





한동인 Magazine
2014 Vol. 2

Handong IN은 한동 안에서의 많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In’과
한동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간다는 ‘人’의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한동인 Magazine은 연2회 발행되며 한동인 Newsletter는 학기 중 매월 발행됩니다.

발행처 (학)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기획 후원팀, 대외협력팀
글 학생기자(성연태, 임동진, 이윤혜, 신지혜, 이혜정)
사진 이완, 학생기자(장형규, 성연태, 이영건)
디자인 디자인 인사이트

CONTENTS

Special Theme	한동의 13번째 학부, '창의융합교육원' 태어나다	2
창의융합	장순홍 총장의 '비전과 창의융합' 수업	4
	한동대 제1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6
People	한동을 사랑하는 선배, 교수가 되어 돌아오다	8
	네팔 연약학교 이사장 진태훈 동문	10
	나눔문화를 제공하는 '카페 허그인' 신성국 동문	12
Inside	통일한국을 위한 한동연합, 2014 한동 북한증보주간	14
	전산전자공학부 '캡스톤 경진대회'	16
	사랑을 짓는 사람들 '한동 해비타트'	18
Focus	한동대 서울사무소 개소	20
	한동대, 2014 LG 글로벌챌린저 대상	22
	마이클 베히 교수 창조과학 특별강연	24
	성황리에 마친 2014년도 취업박람회	26
News	단신모음	28

Community	교직원 소식	34
	동문 소식	35
	총장 동정	36
	글로벌후원회장 동정	36
한동툰	아름다운 마음씨	37
갈대상자	한 사업가의 귀한 마음, 김인곤 후원자와의 인터뷰	38
	팀워크 장학생, 솜뿔비빔 학우와의 만남	40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졸업생 후원모임 '뿌뿌'	42
	재학생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 '한동천사'	44
	후원안내	46
	신규기부자 명단	48
	후원소식	50

한동의 13번째 학부, '창의융합교육원' 태어나다

인문사회·이공계열 융합하는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연구



한동대학교에 13번째 학부가 신설됐다. 바로 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용원)이 그것. 창용원은 인문사회와 이공계열을 융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연구와 시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창용원 학부의 특징은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계열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좀 더 심화된 수준에서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창용원 내에는 2전공과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공과정이 설치됐다. 또한, 교수나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를 반영, 설치해 이수 시 프로그램 인증서를 부여할 것으로 계획됐다.



특히 2015년 1학기부터 시작되는 창용원의 첫 전공과정인 ICT 융합 전공은 인문사회적 소양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문사회와 이공계열을 융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ICT 융합 전공은 2전공으로 선택 가능하며 모든 전공과 연계를 할 수 있다. ICT 융합 전공의 이수체계를 살펴보면 ICT 융합 입문 과정을 시작으로 기초과정에는 융합입문, 문제해결방법론, 프로그래밍 등이 있다. 이후 심화 과정으로 다른 전공과 ICT를 융합한 교육을 통해 융합 실습과정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한편, 창용원과 기존 GEA(Global Edison Academy) 학부는 비슷한 면이 많아 보인다. 두 학부 모두 2전공과 부전공으로만 선택할 수 있고, 학문 간

‘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존 GEA 학부의 경우 글로벌기업가 정신, 창업에 특화된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게 구성돼 있다. 창용원은 학문 자체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학문을 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창의융합원장을 맡고 있는 방청록 교무처장은 이번 창의융합원 학부 개설과 관련해 “학제간 화학적 결합에 기초하는 융합교육을 한층 활성화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길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순흥 총장의 ‘비전과 창의융합’ 수업

학생들의 창조력과 혁신역량 키우려 직접 나서



장순흥 총장은 이번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직접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한동대는 채플 시간이나 특강을 통해 총장과 학생들이 소통해 왔지만 총장이 직접 강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국 대학의 사례를 찾아봐도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이 ‘거시경제학’ 수업을 연 것을 제외하고는 현직 총장이 수업을 직접 여는 사례는 거의 없다.

장 총장은 2014년 2학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비전과 창의융합’이라는 교과목을 직접 맡아 강단에 섰다. 이는 장 총장이 학생들의 고민과 생각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들으며 함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육과 연구, 컨설팅을 통합한 새로운 수업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다루는 10대 프로젝트 과제는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가르치고 연구해 그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산업에 돌려주게 됩니다”

‘비전과 창의융합’ 수업을 통해 장 총장은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와 정보를 다룬다. 특히 학생들은 지금까지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토의하고

연구한 내용을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풀어냄으로써 창조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각자 10대 프로젝트(통일한국, 지역발전, 아프리카, 창업 활성화, 스마트 파이낸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차세대 자동차 및 로봇,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차세대 의식주, 건강-복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한 학기 동안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연구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매주 강의 주제와 관련한 사례 및 자료 리서치를 정리함으로써 학생들은 정보검색능력과 데이터 정리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었다. 수업 마지막 날 학생들의 최종 발표를 듣는 장 총장의 웃음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 보다 학생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했다.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한 학기 동안의 연구 결과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창조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전세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끝없이 도전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한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H)

“창조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전세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끝없이 도전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한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대 제1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품은 개척자 정신 장려

지난 11월 29일, 제1회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교내 올네이션스홀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한동대 산학협력단 창업지원실이 올해 첫 번째로 개최한 대회이다. 이는 학생들의 창업가 정신을 독려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대회로, 이번 대회에선 14개 팀이 참가하여 기획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심사 받았다. 행사는 포항시청, 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 MBC, 한동대 창업보육센터, 한동대 총동문회에서 지원하고 협력했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4개 참가 팀의 최종 경연이 있었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특강, 시상식, 폐회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14개의 참가 팀은 경연 시간에 3분간 기획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외부 심사위원으로는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과 넥스 트랜스 홍상민 대표이사, 킹스베이캐피탈(KingsBay Capital) 신명철 대표, 마젤란 기술투자 류인철 대표, 큐브피아 권석철 대표 등이 참여하여 사업의 타당성, 팀 구성의 필요성, 기술의 독창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하며 심사했다.

발표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선 긴장감과 설레임을 동시에 엿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발표를 바라보는 심사위원들 또한 젊은이의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열정을 보며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특히, 심사평 시간에 각 기업 대표들은 애정이 가득한 피드백과 격려를 하며 학생들의 창업정

신을 높게 평가했다. 청중평가단과 심사위원단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알콩달콩 컴패니, 더붓, 핸디, 효텍, 리본 등 다섯 팀이 이번 스타트업 경진대회의 상들을 수상했다.

알콩달콩 컴패니 팀은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으며, 더붓 팀은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핸디 팀은 “작게 시작한 꿈이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효텍 팀은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리본 팀은 “팀원들과 심사위원들께 감사 드린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고 각각 소감을 전했다. 청중들은 수상팀들과 수상하지 못한 팀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번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팀에게는 한 학기 실리콘밸리 현지 탐방 및 체험 기회 제공, 창업 교육 제공, 차기 선발자 멘토 역할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고영하 회장은 “한동대 학생들이 정말 준비도 잘 되어 있고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결같이 세상을 바꿔보려는 노력이 묻어났다. 사실 최종 경연에 참가한 14팀 모두 훌륭했는데 선택된 다섯 팀은 좀 더 준비가 많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폐회식에서 장순홍 총장은 “한동대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융합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했으면 한다”며 학생들에게 창업 정신을 장려했다.

한동대가 추구하는 기업이 정신의 한 축에 이제 창의융합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가치로 자리잡았다. 앞으로도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는 학생들의 열정 가득한 도전이 지속되길 소망한다. (ft)



참가팀 명단

-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알콩달콩 컴패니'
- 엔지니어들을 위한 발전된 기술의 플랫폼을 선보인 '더 드롭(the Drop)'
- 재활 보조 시스템을 개발한 '핸디(HANDi)'
- 심폐소생술(CPR) 보조 구급 기구 개발팀(WNCTW)
- 봉지 과자 질소량을 측정하는 앱을 개발한 '프레시맨(Fresh Men)'
- 퇴직 전문가의 경험과 투자금을 창업 아이디어와 매칭시키는 프로젝트를 선보인 '내로우 게이트(Narrow Gate)'
- 비주얼 북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사업체 '비주얼 하우스'
- 모바일 통화 앱을 개발한 '에드링크(ADlink)'
- 재택 재활운동 장치를 만든 '효텍(HyoTech)'
- 사회적 약자를 위해 택시비를 기부하는 앱을 선보인 '별난 사람들'
- 모바일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기획한 '더붓'
- 스마트폰의 홈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시드 론처(Seed Launcher)'
- 소음이 없는 헤드드라이기를 만든 '리본(REbon)'
- 코디네이팅 서비스 앱을 선보인 '와이 낫(WHY NOT?)'

한동을 사랑하는 선배, 교수가 되어 돌아오다

기계제어공학부 김영근 교수



한동의 '가장 젊은 교수', '한동 졸업생 첫 전임교수' 등으로 불리는 김영근 교수를 만났다. 그는 기계제어공학부의 졸업생이자 현재 같은 학부의 교수로 부임했다. 다시 모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교육하며,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생활이 즐겁다고 말하던 그는 후배이기도 한 자신의 학생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에 충분해 보였다.

김영근 교수는 05학번으로 한동에 입학하기 전 99학번으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군 입대를 했고, 제대 후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이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인도해주시길 바라던 시기에 한동대 재학생이던 친동생으로부터 <갈대상자> 책을 선물 받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한동에 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동대학교는 저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선 제 아내, 제 친동생도 모두 한동인입니다. 저보다 먼저 입학한 친동생 덕분에 한동대를 소개받을 수 있었으며, 학교 덕분에 동문인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기에 한동이 제 가정에 주는 의미가 큼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고 교수님, 선후배, 동기들과 따뜻한 추억을 많이 쌓게 해준 한동을 정말 사랑합니다. ‘배워서 남 주자’ 정신을 배우며 언젠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학교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재학생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한동대로 인도해주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채용 공고를 본 이후부터 교원 심사면접, 포항에 이사 올 때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교원 최종 합격할 시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몇 군데에도 합격이 된 상태였는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동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였기에 망설임 없이 포항으로 이사 왔습니다.”

김영근 교수는 한동에 입학하기 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공부에 대한 갈증이 컸다고 고백했다. 그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상황 자체가 늘 기쁘고 감사했다. 이는 그가 4.46학점으로 조기졸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저는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거의 모든 수업시간에 앞자



리에 앉고, 궁금한 것에 대해선 꼭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에서 여러 번 줄기도 하고 지각 한 적도 있지만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죠. 제가 이렇게 성실히 공부했던 다른 이유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한스트에서 한 명에 서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한동인으로서 명예 제도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현재 그는 교수로서 영상처리를 배우는 ‘머신비전’, 기계제도 기법과 3-D CAD를 배우는 ‘3D모델링’, ‘제어회로 실험’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새로운 전공과목들을 개발 중에 있다. 그는 학생들이 전공 지식만을 공부하기 보다는 대학시절 그가 실천했던 한동의 정신과 문화도 이어가길 바라고 있었다.

“앞서 말한 명예제도 서약식을 하며 남보다 저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후배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선배가 앞으로 나와 그 시험지를 찢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 또한 한동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굳게 다짐했죠. 다행히도 시험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을 목격한 적이 없어서 시험지를 찢는 일은 없었네요(웃음). 또 이번에 수시전형 면접관을 하면서 현동홀 입구에서 면접 도우미들이 지원한 학생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울컥했고, 역시 ‘한동스럽다’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후배들이 한동의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편으로는 제가 갈대상자를 읽고 한동대에 수시전형으로 지원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면접관이 되어 한동대 지원 학생들을 면접하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해 참 신기하면서도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교수님으로서, 한동의 선배로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앞으로 저의 연구실을 꾸려가며 여러 연구 및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과 같이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그 내용들을 전공 수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전공의 교수님과 같이 연계하여 융합연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및 진로 등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를 큰 형, 오빠, 젊은 삼촌처럼 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그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가깝고 친밀한 큰 형, 오빠 또는 젊은 삼촌 같은 교수가 되기에 충분했다. 한동에서의 첫해가 2개월 남짓 남은 10월의 어느 가을날, 그는 무엇보다 기도로써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해나가고 있었다.

“제가 한동에서 수준 높은 연구와 전공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H)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네팔을 변화시키다

네팔 언약학교 이사장 진태훈 동문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부를 졸업한 97학번 진태훈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언약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교육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팔에서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선임 선교사님께서 네팔에 계실 때 저를 과학 선생님이로 부르게 돼서 학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임 선교사 사모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학교에 오라고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네팔은 위험하다며 거절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죠. 돌이켜보면 누군가는 네팔의 ‘언약학교’를 섬겨야 할 시기에 누군가 인생의 진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고, 그게 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면서 학교에 다녔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네팔에 왔단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처음 왔던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네팔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선교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고, 그리고 나서 학교의 모든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장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걱정이 몰려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선임 선교사님이 세웠던 가치와 비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선생님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 가운데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죽음의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사업을 직접 실천했을 때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들려주세요.

선임 선교사님 후임으로 네팔에 왔는데 학교 사람들은 저를 ‘낙하산’처럼 느꼈나 봅니다. 처음부터 자기와 일했던 사람을 존경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약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전 선교사님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던 현지인 교장 선생님은 저와 성격이 완전 반대였어요. 저는 약간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교장 선생님은 꼼꼼하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치는 경우가 생겼지요. 또한, 새로운 이사장이 교장을 갈아치우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또 근처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서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주일 예배 시간에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후에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서로 신뢰하며 같이 일을 해 나가자고 말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때서야 교장 선생님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모든 권한과 재정관리를 교장 선생님한테 맡겼습니다. 이후 학교 직원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네팔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교육방법을 학교 안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팔 교육 시스템에는 없는, 새로운 커리큘럼과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대학교를 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한,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들이 네팔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언약학교’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네팔 안에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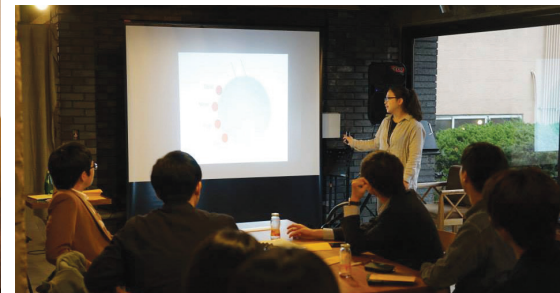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나눔의 기적을 만들고 싶어요

즐거운 나눔문화를 제공하는 '카페 허그인' 신성국 동문



단순히 커피만이 아닌 나눔문화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가 있다. 서울 홍대 부근에 위치한 '허그인'이 바로 그 카페이다. 그리고 이곳은 한동대 동문인 신성국(국제어문 04)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허그인은 나눔을 즐겁게 실천하고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도와주는 나눔문화콘텐츠를 플랫폼(페이스북, 블로그, 오프라인 카페 공간 등)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성국 동문은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를 보고 감동을 받아, 나눔의 나비효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비전을 품게 됐다.

“영화에 등장하는 한 소년은 진심을 담아 선행을 베풀면 그것이 나비효과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라 믿고 실천에 옮깁니다. 소년의 행동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나눔을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세상을 상상하며, 서른 명의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카페 허그인은 나눔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카페 공간 곳곳에는 메뉴, 서비스, 공간, 콘텐츠 등을 포함해 나눔에 대한 즐거운 경험과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허그인 터치’를 주문하시면 이전에 주문하신 분의 ‘마음(터치카드)’과 그분이 미리 선택해 두신 ‘음료’가 함께 제공되고요. 새로운 터치카드에 다음 분을 위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허그인 터치’를 통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나눔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 허그인을 찾아주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음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나눔문화콘텐츠(인식, 실천, 소통)가 시작될 예정이다:

1. 허그인 인식콘텐츠=나눔이 쉽고 재미있다는 인식을 하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
2. 허그인 실천콘텐츠=나눔을 즐거운 놀이처럼 지속해서 실천할 수 있게 돕는 ‘대국민 나눔 콘텐츠’
3. 허그인 소통콘텐츠=나눔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모임 콘텐츠’

허그인에선 전시, 공연,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신성국 동문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외롭고 두렵지만, 흥미진진한 모험이라고 표현한다.

“허그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힘든 과정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꿈과 열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응원과 격려 덕분인 것 같아요. 카페 운영 중간에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버랑 끝까지 내몰린 적도 있었는데요. 신기했던 건, 그런 와중에도 가슴이 뛰었고 내가 품은 마음이 진짜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던 수많은 사람의 모습이 한 명씩 스쳐 지나가면서 감사한 마음과 책임감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자 상황도 세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물론이고 해결의 열쇠 역시 대표자인 나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는 기억에 남는 일화로 허그인에서 있었던 젊은 커플의 결혼식을 꼽았다. 허그인은 이로써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그는 허그인을 운영하면서 ‘나눔’이란 꿈을 많은 사람과 함께 꾸게 된 점이 가장 보람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눔을 실천하고 이어가게 된다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꿈이 어느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꾸는 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는데, 이젠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되어가는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H)

통일한국을 위한 한동연합

2014 한동 북한중보주간

한동 북한중보주간(이하 북중주)은 2011년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작됐다. 북한과 통일
에 관련된 다양한 공동체들이 연합해 한 마음으로 한동과 포항 지역사회에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의 어려운 실
상들을 알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북중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014년 한동 북중
주는 11월 9일 일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11월 16일 토요일까지 재학생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뤄졌다.



이번 북중주는 이사가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
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를 주제말씀으로 ▲기도와 예배 ▲북한
의 실상 ▲통일준비라는 3가지 주제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Flow1. 기도과 예배

일주일 동안 채플에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시간에 북한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북중새벽기도회
와 강물예배가 드려졌다. 또한, 북한과 통일을 위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학생회관과 오석관
에 위치한 기도실에서 릴레이기도 자리가 마련되었다.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기에 북중주 기간 동안 마
련된 기도자리는 북중주의 중심이었다. 김송설(법 13) 학생은 “북중주 기간동안 통일과 북한을 향
한 한 마음과 뜻을 품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에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였습니다”라고 전했다.

Flow2. 북한의 실상

도서관에 위치한 영상 미디어실에서는 ‘우리가족’, ‘크로싱’과 같은 북한의 실상을 다룬 다큐멘
터리 영화가 상영되었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캠퍼스에 방문해 주관한 북한인권국제영화
제 영화상영회는 작품 상영 후 재학생들이 영화 관계자와 탈북자의 강연을 들으며 북한인권 현실
및 탈북자 정착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LANK(한동국제법률대학원 북한인권 및 개발법학회)와 SAGE(한동대학교 북한인권학회)의 주관
으로 법률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북한인권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또한, 이 두 학회는 북중주 기간 동



안 ‘2014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공해영(국제어문 12) 학생은 “평소 북한 인
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북중주 기간 동안 영화상영, 전시회,
세미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한동이 먼저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라고 전했다.

Flow3. 통일 준비

북중주 기간 캠퍼스 곳곳은 통일 준비 프로그램으로 분주해 보였다. 학
생 회관 앞 거리에는 북한 전통음식인 아바이 순대, 두부밥, 속도전떡(옥
수수떡)이 판매되었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활동도 진행
되었다. 한동통일아카데미에서는 11월 11일을 ‘하나데이’로 정하고 통일
을 준비하는 전문토크쇼 ‘제2회 통일스케이치’를 개최했다. 한동대학교 구
성원들의 통일 인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구성원이 소통했
고 탈북민 사업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사,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선
교사는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민호(국제어
문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가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
던 구상들을 나누며, 통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귀
한 시간이 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통일네트워크’에서는 통일과 북한을 마음에 품은 학생들과 현장에
서 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만남을 준비했다. 서로의 비
전을 함께 나누고, 재학생들이 이 자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통일과 대북
관련 직업에 대한 감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한동대학교 학
생들로 구성된 남북청년합창단 너나들이 하모니는 한국무용 동아리 하
향, 오케스트라 챔버와 연합 콘서트 ‘하나 될, 그 날에’를 구성했다. 세 팀
의 하모니를 통해 먼저 우리 안에서 작은 통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콘서트는 포항시민과 탈북민을 초청한 자리였기에 더욱 특별
했다.

이번 북중주를 총괄 기획한 박소명(경영경제 12) 학생은 “한동의 북한과
통일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는 것에
집중했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통일 한국을 위
해서 다방면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한동의 북한중보주간은 올해로 4회를 맞았다. 해가 지날수록 더 다양
한 단체와 프로그램들이 참여하며 북한과 통일한국에 집중하는 일주일
의 시간은 더 없이 귀해 보인다. 앞으로 한동대학교를 넘어 포항 지역사
회,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동의 북중주가 되
기를 소망한다. ㉔

이론을 실천화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전산전자공학부 ‘캡스톤 경진대회’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이하 전전학부)에서는 일 년에 두 번,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작품을 설계하고 전시하는 행사가 있다. 바로 ‘캡스톤 경진대회’(이하 캡스톤)이다. 대회는 수업 내용을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12월 4일, 올네이션스홀 302호에서 캡스톤 수업을 수강한 전전학부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각 작품마다 만든 팀이 자리를 지키며 작품을 설명했다. 방문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관람하며, 질문하고, 설명을 들었다. 전시회 후, 학부 교수들의 심사가 있었다. 3등까지 선발된 팀은 상품을 수여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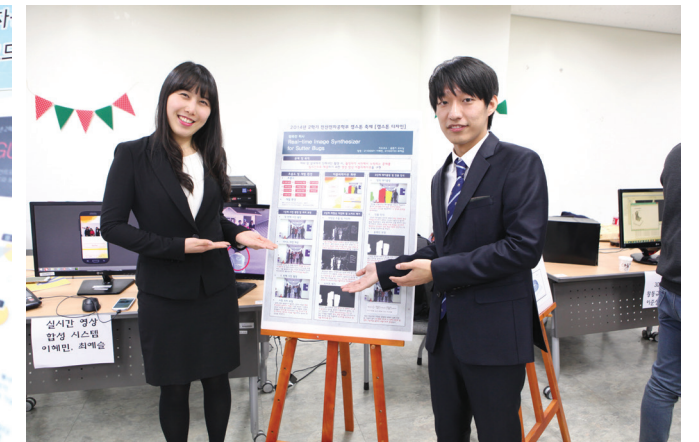
이번에 열린 캡스톤 경진대회는 16회로, 첫 대회가 있던 2008년 이후로 8년 켜다. 캡스톤은 전전학부 학생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4년간 공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 후, 문제해결 과정을 문제정의 단계에서 구현하고, 문서화 단계까지 경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더 발전된 형태로,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제간 융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다. 캡스톤 초기 단계에서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 설계하는 경우엔 결과물이 기업체의 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학문적으로 더 다듬어져 대외적으로 논문으로 출간되는 경우도 있다.

실로 작품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잠재성은 우수하다. 전전학부의 이강 교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꼽았다.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본격 소개되기 전, 한 학생이 독학으로 미국에서 구한 안드로이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여 음악 연주기를 만든 적이 있었다. 교수들보다 더 앞서 최신 기술을 스스로 획득하고 적용하여 제품화하는 탁월성이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음을 알고는 감동이 컸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된 캡스톤 작품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젝트, OpenSSL을 이용한 자동 로그인 어플리케이션, Internet Voting System,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맛집 랭킹 검색 시스템, 실시간 영상 합성 시스템, 로봇에 지능을 심은 SoC 로봇 등이 있었다.

카이스트 SDIA센터에서 주관하는 ‘2014 지능형로봇 SoC 위’에도 참가해 우승했던 팀원, 황주혜(전산전자 11)학생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웠고,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이론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됐다”며 캡스톤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이강 교수는 “캡스톤에 출품한 작품은 기업체나 대학원 진학 때 자신의 주요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실무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자신감을 주는 역할과 향후 졸업 후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는 두 가지 용도로도 캡스톤은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캡스톤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H)



사랑을 짓는 사람들 '한동 해비타트'

한동대학교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동 해비타트'이다. 한동 해비타트는 한국해비타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CCYP(Campus Chapter Youth Program) 소속 동아리로, 상상력이 넘치고 활력이 가득한 젊은이들을 해비타트 활동에 동참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와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동 해비타트 이승중 회장(경영경제 09)과의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비타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동 해비타트는 200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해비타트 포항지회와 연계하며 집수리 활동과 도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항에서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낙후되고 삭막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마을의 개성과 특징을 담은 '사랑의 벽화 그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활동 같은 경우에는 태백, 군산, 진주 등 특정 건축 지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주말 혹은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집 건축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 해비타트 인원은 30명 정도이며 매년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질적으로 더 뛰어난 봉사를 하기 위해 다른 봉사 동아리와 연계해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아름다운 동행', 벽화 그리기 단체 '사랑 그리다',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동지회' 모임들과 함께 연합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경험이 있다면?

많은 봉사를 해오면서 가장 보람찼던 봉사는 최근에 있었던 '포항시 연합봉사'입니다. 지난 11월 22일에 구룡포 석병 1리 마을에서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동 해비타트 뿐만 아니라 '사랑 그리다' 팀, '동지회' 팀과 더불어 한동대학교 '대박집' 팀이 참여하여 더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봉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협력을 통한 봉사의 소중함과 영향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를 하면서 정말 특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에 벽화를 그린 것입니다. 평소에 영화나 TV 를 통해서 유치장이 어떠한 곳인지는 보았지만 실제로 그 곳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었고 그곳에 벽화를 그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벽화 그리기를 통해 유치장이 기존의 차갑고 답답한 이미지를 벗어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유치장에 오는 사람들이 차가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대학교 학우들과 한동 해비타트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동 해비타트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아리 내부적으로 사랑이 넘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사랑이 넘치는 동아리'라고 부르면서 서로가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사랑, 겸손, 봉사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작은 곳에서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이 '봉사'라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고 사소한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봉사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 해비타트 친구들! 1년동안 봉사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되어 지금까지 외워서 정말 고맙다.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벽화 그리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동아리 사람들 모두 남은 학기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한동 해비타트 회장 이승중)

한동대 서울사무소 개소

한동 네트워크 확대 기대

한동대학교 서울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10월 4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순홍 한동대 총장과 김영길 한동글로벌후원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지성한 UNAI KOREA 공동회장, 이시영 전 유엔대사, 총동문회장, 총학생회장, 학부모기도회 회장, 학교 관계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사무소는 갈대상자 후원자들이 모여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한동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한동대 졸업생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UNAI KOREA(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서울 사무실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며, UN 최초의 글로벌 교육협력 캠페인을 추진해 UN 공공정보부 봉사부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장순홍 총장은 축사에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창업, 후원, 동문 네트워크 구성 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논의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액션들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한동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길 회장(한동대학교 초대총장, 한동글로벌후원회 회장, UNAI KOREA 회장)은 “한동대 서울사무소는 한동대학교의 제2의 창학이

라고 할 만큼 매우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다. 서울사무소는 2015년 20주년을 맞이하는 한동대학교의 새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는 개소감사예배 때 말씀을 통해 “이 곳을 통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동대학교와 UNAI의 활발한 운동의 진원지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한동의 네트워크지인 서울사무소가 늘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결실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H)

서울사무소 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13 라임타워 12층
연락처 : 02-3443-3939

한동대, 2014 LG 글로벌챌린저 대상

‘친환경 스티로폼 부표 연구’로 대상을 받은
머씨룸(muSEARoom)’팀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1월 6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 글로벌챌린저 2014(이하 글로벌챌린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2009년, 2013년에 이은 3번째 대상이다. 글로벌챌린저는 선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2주간 해외국가를 탐방한 후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개팀 140여명의 대학(원)생이 2주간 20여개 국가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을 둘러봤다.

하얀 바다에 버섯을 심자

한동대학교 임평화(GEA 08), 한예정(경영경제 10), 이규리(산업디자인 11), 이주연(경영경제 11) 학생으로 이뤄진 ‘머씨룸(muSEARoom)’팀은 하얀색 화학 스티로폼 부표가 떠다니는 바다에 주목했다. 쓰고 난 부표가 수거되지 않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고민하고 정보를 검색한 끝에 찾은 대안이 버섯 스티로폼이었다.



“기술을 찾을 때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제안서 쓴 전체기간의 반을 기술을 찾는 데 썼을 정도로요. 그리고 보통은 어려운 잡지에서 내용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다 인문계 학생이에요. 그래서 심플한 기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보는 ‘과학동아’도 살펴보다가 버섯 스티로폼을 찾게 되었어요.” (이주연)

버섯 스티로폼은 버려지는 식물성 폐기물과 버섯 균사의 번식력으로만 들어지는 친환경 스티로폼으로 자연 상태에서 100% 생분해가 가능해 화학 스티로폼과 달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버섯 스티로폼 상용화의 길을 찾다

‘친환경 스티로폼 부표 연구’라는 주제로 글로벌챌린저에 선정된 머씨룸팀은 버섯 스티로폼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업체와 연구소를 방문했다. 특히 버섯 스티로폼의 경제적 효율성과 대량생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버섯 스티로폼의 내구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로 친환경 코팅업체들을 찾아다녔다.

“버섯 스티로폼을 보는 순간 ‘필요하다.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상용화 욕심이 났던 소재라 저희 탐방도 업체 위주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임평화)

미국탐방에서 기술만 배웠던 것은 아니다. 머씨룸팀은 미국탐방을 통해 버섯 스티로폼 부표 상용화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버섯 스티로폼을 만드는 업체를 갔는데 부표용 스티로폼을 만드는 건 아니고 포장재나 단열재를 주로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부표가 상용화되는 날이 내가 퇴직하는 날이다’. 본인이 지금 60세인데 만약 부표가 상용화가 된다면 퇴직해도 여한이 없겠다는 뜻이었어요. 버섯 스티로폼 부표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코팅기술이 필요해 미국의 업체들도 아직 미완성 단계였는데, 우리나라도 이 기술에 주목해 발전시켜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규리)



버섯 스티로폼을 알리다

머씨룸팀은 미국탐방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부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와 친환경 부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학원에 탐방 결과를 알렸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의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저희끼리 그런 얘길 한 적이 있어요. ‘미국까지 다녀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내버려두느냐. 우리가 계속 알리자. 이렇게 끝내지 말자’ 그런 목표로 모두 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인문계 학생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를 적극 알리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11월 20일 해양환경오염 관련 학술대회에서 스피커로 참석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이게 마지막 과제라면 과제였던거죠.” (임평화)

마지막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각자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서로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규리는 ‘규리’와 ‘크리에이티브’의 합성어인 ‘큐리에이티브’라 불리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제를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평화 오빠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바’ 역할, 주연이는 해외 기관이나 교수님들을 컨택하는 ‘브릿지’ 역할, 저는 전체를 조망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 자기 역할만 열심히 하면 ‘굿’팀이 될 수는 있어도 ‘베스트’팀이 될 수는 없어요. ‘협력 없인 베스트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서로 협력해서 대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예정) (H)



개교 20주년 창조과학 특별강연 개최

세계적 석학 마이클 베히 교수



한동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창조과학 특별강연으로, <다윈의 블랙 박스>, <위대한 설계, 그 흔적들> 등의 저서들을 출판한 바 있는 마이클 베히(Michael Behe) 교수의 지적설계에 대한 강연이 9월 26일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다.

마이클 베히 교수는 현재 미국 르하이 대학교 생화학과 교수이다. 그는 지난 30여 년 간 생명체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강연해 왔으며 CNN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논란 속에서도 이를 전달해왔다.

마이클 베히 교수는 이날, ‘생명의 기초로서의 지적설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마이클 교수는 먼저 지적설계에 대한 5가지 요점을 설명했다.

- 1) 지적설계는 미신적이거나 믿음에 기반을 둔 이론이 아니며 시스템의 구조를 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 2) 생물학에서 생명체들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적설계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가 동의한다.
- 3) 미디어 매체를 통해 다윈주의 진화론이 설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논리적이며 구조적인 걸림돌이 있다.

4) 다윈주의 주장은 실상이 아닌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5) 현재까지 설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들은 있으나, 다윈주의 진화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희박하다.

지적설계는 물체의 여러 부품이 한 목적에 맞게 배열된 것을 본다면, 그 물체가 설계됐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베히 교수가 말하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따르면, 물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품이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할 때 기능을 할 수 있다. 한 가지 부품만으로는 물품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지만 여러 부품이 한 시스템으로 작용할 때 물품은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쥐뿔은 쥐뿔의 기능을 하기 위해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한 부품이라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쥐뿔은 작동할 수 없다.

베히 교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가 어떤 기능을 할 때 목적을 갖고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생화학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박테리아 편

모 시스템’이 있다. 이 편모 시스템은 보트의 모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모터가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편모 또한 여러 요소로 구성돼 있다. ‘필라멘트’라는 부분은 계속 도는 프로펠러 역할을 하는데, ‘회전축’과 연결이 되어있으며, 회전축은 프로펠러가 여러 방향으로 돌 수 있게끔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축이 필라멘트를 돌게 함으로써 세포 밖에 있는 산 물질들을 흡수하며 에너지를 생산한다. 또한, ‘정지자’는 모터가 도는 것을 안정화하고 지탱해준다. 편모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품들이 작용해야 한다. 편모는 분자수준의 기계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기계의 작동 원리를 보면 그것이 인간에 의해 설계된 것임을 알 수 있듯, 이런 박테리아의 구조물을 보고 박테리아 또한 창조주의 의해 설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지적설계연구회 및 한동대 창조과학연구소장은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적 설계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오묘함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뜻을 전했다.

이날 강연은 내, 외부인이 오디토리움을 가득 채워 복도까지 가득 메우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허성백 (GLS 14) 학우는 “강의 중 베히 교수님이 진화론의 한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배워왔던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게 됐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는지 조금 알게 됐다. 기원과학에 관해 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연에 참석한 이예담 (경영경제 11) 학우는 “세계적인 석학이신 교수님께서 직접 강연해주시니까 수업 때 배운 지식이 좀 더 실제로 느껴져서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이슈들에 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창조원리를 탐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기독교 지성인이 되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H)

성황리에 마친 2014년도 취업박람회

1000여명 학생참여, 취업지원 이벤트도 함께 열려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교내 학술정보관 2층 휴게실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 기간 동안 학생 1,000여명이 참가했으며 학생들의 취업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는 한동대의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 인재 양성사업단과 학생경력개발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롯데그룹,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지역의 에너지·환경·기계 우수 기업 등 총25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각 기업별 채용부스에서는 회사 설명과 채용 상담이 진행됐으며 일부 기업은 따로 기업 설명회를 열어 회사 현황과 취업 정보를 알려 주기도 했다.



이틀 동안 학술정보관 휴게실은 기업 채용 부스와 취업 준비생들로 가득찼다. 각 부스는 빈 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으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취업 준비생들로 취업에 대한 열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부스 앞에는 학생 10여명이 모여 있었다.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 중견 간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들의 취업 열기를 전달한다. 또한 신입 직원은 구매 부서에 지원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인사 부서에 지원해서 채용되었다는 생생한 채용 팁을 전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었다.

박람회에 참가한 김학준(전산전자 4학년) 학생은 “기업 부스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분들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의를 느낄 수 있었다”며 “모르는 기업 중에서 생각보다 좋은 기업이 많다는 것은 알았다. 이전까지는 계속 수도권 쪽에 있는 회사들에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못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업별 부스 운영 외에도 이미지 메이킹,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이벤트가 진행됐다. 어떤 학생은 이미지 변화를 위해 과감히 안경을 벗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전문가에게 직접 자기소개서를 수정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서연(전산전자 3학년) 학생은 “관심이 있던 기업에 대해 잘 알아 볼 수 있었고 평소 알지 못하던 기업도 알게 되어서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무료로 메이크업도 봐주고 어울리는 색과 의상 등까지 개개인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진도 학교 안에서 쉽게 찍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주병창 학생경력개발팀장은 “올해 취업박람회를 위해 지역의 에너지·환경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초청했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기회로 학생들이 우수한 지역의 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어질 취업박람회가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더 풍성한 취업 지원 이벤트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H)



한동대, 사모아서 기후변화 섬나라들을 위한 유엔국제회의 열어

한동대학교가 남태평양 섬나라 사모아에서 “2014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한동대학교 사모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5년 유엔 70 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제3회 소도서국 유엔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소도서국의 기후변화,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주제를 다룬 포럼이다. 이 포럼은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사모아 투시탈라 호텔과 사모아 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사모아 국립대학교가 협력하고 코이가 및 동원산업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히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장순홍 한동대학교 총장, 사모아 국립대학교 총장, 라무 다모다란 유엔 공보국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국장, 김영길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한국협의 회장, 이재영 한동대 교수와 성창모 한국녹색기술센터 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또한 사모아 현지 대학 교수와 학생, 유엔 고위 관계자 및 세계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을 하였으며, 사모아 현지 언론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글로벌 허브 기관인 한동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섬나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기후변화 대처 등 유엔의 주요 의제를 주도적으로 다뤘다. 이로써 한동대는 향후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의 기본 정신인 교육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한동대가 적극 참여하여 사모아 대학과 사모아, 나아가 다른 섬나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를 통한 대학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며 한동대의 이번 사모아 포럼 개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국의 한동대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로 가라앉은 섬나라 국가들을 현지 대학들과 함께 에너지 문제, 국가 경제 발전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모아에 방문하여 도와주는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통일과 평화연구소,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시작

한동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소는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라는 인문계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동안 매년 8천만원, 총 2억 4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과제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법학, 철학, 사회복지학자들과 국제장애인권연구의 최고 권위 기관인 미국 시라큐스(Syracuse) 대학의 버튼 브렛 연구소(Burton Blatt Institute)의 책임연구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가 미국 연구팀으로 참여한다.

연구 1년차에는 국제장애인권 문헌들을 수집·조사하고 국내·외 장애 복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내 학술 대회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장애인 실상에 정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2년차에는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간 회의’에 참여하여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엔의 북한 인권과 국제장애인인권 전문가, 국제 장애인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장애 국가 정책과 북한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연구 3년차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위치하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럽의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북한 장애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의 준비단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제기구들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정책과 원조 및 개발을 논의함으로써 실제적인 북한의 장애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북한 장애인 인권과 복지 문제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장애인 인권·복지 기준을 가지고 국제 기구 및 유럽국가들의 지원으로 북한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향상 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인중 한동대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전산전자공학부 김인중 교수가 지난 12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패턴인식과 기계학습 기술의 실용화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2001년 2월 카이스트(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벤처기업에 진출하여 패턴인식,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을 산업현장에 직접 실용화하며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공헌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김 교수가 개발한 문서 인식 엔진들은 다수의 금융기관 및 관공서의 문서 자동화 시스템에 핵심 엔진으로 적용 됐다.

김 교수는 2006년 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에 부임한 이후에도 문서인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직결된 한글 인식 연구를 꾸준히 수행한 결과 필기한글인식 분야에서 인식률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개인 마르퀴즈 후즈후와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 등재 됐다.

2012년부터는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트렌드인 깊은 학습(Deep Learning)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연구자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깊은 학습(Deep Learning)은 빅데이터를 위한 패턴인식이나, 사물인터넷을 위한 지능형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20여 회의 국내외 학술강연 및 산학세미나를 통해 깊은 학습(Deep Learning) 기술을 국내 산업계 및 학회에 보급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본인의 주 분야인 필기한글 인식 및 얼굴·표정 인식 등에 깊은 학습(Deep Learning)을 적용하여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성취 했다.



법학부 전민규 학생,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대상 수상

법학부 전민규 학생(4학년)이 지난 8월 23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4년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에서 대상(법무부장관상)과 최우수서면상(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국제인권 분야에 대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모의재판대회로 국제인권과 인권이론의 관점에서 국내·외 인권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전민규 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인턴으로 만난 이경빈, 손성동 학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4학년)과 함께 학부 부문에 ‘어떤 시선’ 팀으로 출전하여, 결승에서 서울대 법대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와연(Lee&Yeon)’ 팀을 누르고 대상인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동시에 사전 제출한 서면본문서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역대 처음으로 대상과 최우수서면상(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을 동시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

전민규 학생은 “학부 시절 교수님들께 배운 가르침 덕에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다. 특히 김윤규 교수님 연구실에서 동양고전 독회를 함께 하며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 것, 그리고 올해 초 ACE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국운 교수님과 함께 다녀온 아시아 인권단체 리서치를 통해 국제 인권 이슈에 대한 시야를 넓혔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도 통일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며, 세상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공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대, 제2회 UNAI 논문경시대회 대상 수상

지난 8월 28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2회 UNAI 대학생 논문경시대회에서 한동대 학생팀이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UNAI 대학생 논문경시대회는 새천년개발 목표연도인 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전망과 고등교육기관의 참여”라는 주제로 국제개발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는 대회이다.

국내·외 총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대상은 “Appropriate Technolog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Analysis of BioSand in Local Context” 주제로 한동대학교팀(정지훈, 박민정, 장은진, 박은송)이 영예를 안았다.

장은진(4학년) 학생은 “Why not change the World? 구호만으로 가슴 뛰게 하던 한동대학교의 이 슬로건이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더 잡을 수 없는 연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인도 비하르 주민들의 식수개선을 위해 몇 년간 활동한 한동대학교 GEM팀의 BSF를 분석하는 논문을 쓰면서, 다시 가슴이 뛰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세상은 골리앗처럼 힘 센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란 걸 깨닫는 시간이었다. 고작 논문 한편이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걸음들을 함께 걷자고 응원하는 희망의 문서가 되길 소망한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동대, 제6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

국제법률대학원 이혜원(1학년) 학생과 김윤아(1학년)학생 팀이 지난 9월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6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이 팀의 이혜원 학생은 개인상 중 최고 영예라 할 수 있는 최우수 구두변론상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협력하며,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최종 6개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전시와 같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Humanitarian) 문제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법률적 접근과 논쟁을 통해 인도법(Humanitarian Law)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특히 결승에서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팀과 한동대 학부생팀 간의 대결이 이루어져 더욱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열린 제5회 국제인도법 대회의 결승전도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팀과 한동대 학부생 팀간의 대결이었는데, 올해도 동일한 구도가 이어져 국제인도법 분야에서 한동대가 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식 로스쿨 교육 과정을 가진 국내 유일의 학교인 만큼 이번 국제인도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관련 모의재판 대회에서도 늘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우승한 김윤아 학생은 “국제인도법 케이스 리서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국제정치와 인도적 문제가 얽힌 이슈들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황민아 학생, ‘서울노인영화제’ 대상 수상

언론정보문화학부 황민아(4학년) 학생이 지난 10월 27일 서울특별시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최한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 청년섹션부문에서 다큐멘터리 <동행>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황민아 학생의 작품은 심사위원 총평에서 “요양원에 노부부를 모시고 있는 평범한 가족의 솔직한 고백은 노인에 대한 따뜻하면서도 열린 시선을 느끼게 했다. 부부가 따로 병실을 써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손녀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아들의 대화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팽팽한 대립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지혜로운 결말을 통해 노년에 대한 존중과 자식 세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라는 평을 받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황민아 학생은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상을 받게 되어 얼떨떨하다”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지도해주신 현대조 교수님,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특히, 촬영해 준 송강석 학우와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작품의 지도교수인 현대조 교수는 “심사위원과 관객들이 황민아 학생의 따뜻한 시선에 함께 공감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학생만의 특별한 시선을 담은 작품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동대, 올해 사법고시 2명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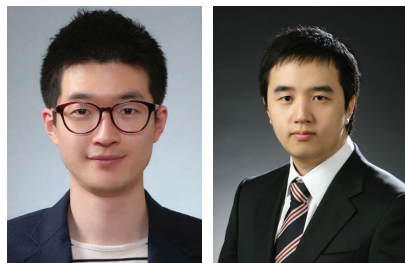
한동대학교는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2명을 배출했다. 합격의 주인공은 이래훈(법학부 00학번)과 윤한진(법학부 02학번) 졸업생이다.

한동대는 지난 1995년에 개교했으며 지금까지 총12명의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4년 2명을 비롯해 지난 2007년 4명, 2008년 1명, 2010년 3명, 2013년 2명이다. 이는 신입생 입학정원이 760명인 소규모 지방 사립대학으로 19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이다.

이래훈 졸업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인 ‘건강한 통일’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는 법이라는 생각으로 법률가의 꿈을 키워 왔다”며 “건설적인 통일을 위한 준비에 관심이 있고, 이를 위한 필요조건인 ‘국가 공권력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준법의식’을 확고히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함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한진 졸업생은 “법률가로서 하고 싶은 일은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대안가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다”며 “청소년 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다시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끊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국운 교수(법학부 학부장)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불리한 학습환경 속에서도 소속 교수 및 학생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면서 “한동대학교 출신의 한국법률가들과 미국법 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네트워크가 가까운 장래에 동아시아의 법률서비스시장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대, 올해 변리사 시험 3명 합격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시험에서 이준원(전산전자 00학번), 정용석(생명과학 05학번), 정성민(전산전자 08학번) 등 한동대학교 졸업생 3명이 최종 합격했다.

베리타스알파에 따르면 한동대는 이번 시험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으로는 카이스트(KAIST)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합격자 출신대학 순위로는 전체 대학 중 공동 10위에 올랐다.

이준원 졸업생은 “시험공부 자체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지만 기도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고, 이 과정 가운데 한동대에서 동고동락한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줬다”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업계 내에서 손꼽힐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정용석 졸업생은 “한동대에서의 다양한 단체활동 경험들이 경쟁하는 수험생활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도와가며 함께 합격하는 기쁨을 느끼게 했다”며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특허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성민 졸업생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인적 자원과 기술을 경쟁력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며 “치열해지는 특허 분야에서 한동대에서 배운 아너 코드(Honor Code)를 기본으로 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변리사가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동대, 올해 행정고시 2명 합격

한동대학교가 2014년 행정고시(5급 공채)에서 최종 합격자 2명을 배출했다. 합격의 주인공은 최현수(산업정보디자인 01학번)와 임희주(상담심리사회복지 07학번) 졸업생이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2014년 행정고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전체의 90%를 넘은 가운데 한동대는 지방 소재 대학으로서는 보기 드문 쾌거를 이뤄냈다.

최현수 졸업생은 “한동대에서 스스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통해 민간기업보다 정부나 국회, NGO 등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며 “나 자신의 명예와 안위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는 처음의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희주 졸업생은 “재학 중에 사회복지 실습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하면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사회복지 직렬 합격자로서 좋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졸업생이 행정고시 사회복지 직렬에 합격한 소식을 들은 정숙희 교수(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학부장)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자랑스럽다”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많은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동대, 올해 공인회계사 지방 사립대 중 최다 합격자 배출

한동대학교는 2014년 실시된 제49회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소재 사립대학 중에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것이다. 아울러 한동대는 57명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10명이 합격해 17.54%라는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동대는 교육중심대학을 표방하며 실무형 인재를 기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방면으로 회계사준비반, 법학부고시반, 언론고시반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학교 규모와 학생 수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수의 합격생을 배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회계사 분야에 있어서 한동대는 개교 이래 총 29명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배출했다.

회계사준비반 지도 교수인 이용 교수(경영경제학부)는 “수도권의 대형 대학에 비해 관련 전공 학생수가 적은 상황임을 감안 했을 때 상당한 수의 학생이 합격 했다”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현철(경영경제, 4학년) 학생은 “이번 시험을 합격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좋은 결과를 이뤄내 기쁘다”며 “회계사 시험공부를 하는데 있어 회계학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합격한 선배들과 먼저 공부를 시작한 선배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동대, '유엔 기탁 도서관'으로 지정

한동대학교 도서관이 뉴욕 유엔본부 주재 유엔 출판위원회(United Nations Publication Board)로부터 유엔 기탁 도서관으로 지정됐다. 이는 국내에서 열한 번째로 대구·경북권에서는 최초이다.

유엔 기탁도서관(당 함마르쉴드 도서관, Dag Hammarskjöld Library)은 1946년에 설립되어 유엔 문서와 출판물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36개국에 약 365개의 유엔 기탁 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동대 유엔 기탁도서관은 2015년 초에 유엔 측에서 제공한 유엔 관련 서적들로 구비될 예정이며, 온라인 자료는 한동대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 초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열람 가능한 자료는 유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등 주요 유엔 기관의 문서와 조약, 간행물 등을 포함한 유엔 공식문서로 유엔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자료이다. 한동대 유엔 기탁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열람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타 대학 도서관에서 대차 혹은 자료 복사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한다.

원재천 국제처장(법학부·국제법률대학원 교수)은 “한동대 유엔 기탁도서관은 국제개발, 국제지역, 국제법 등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유엔 자료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보다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일반 학생 및 교수들도 자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타 대학생 및 일반 주민들도 자료를 열람 혹은 대차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동대는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의 허브대학(Hub University)으로써 ‘고등교육 역량강화’라는 목표를 지니고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사모아 아피아에서 유엔의 ‘지속가능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강조한 고등교육 역량강화, 지속가능 에너지, 지속가능 환경 정책 등과 같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지속가능개발, 적정기술, 교육역량강화 등과 같이 활발한 국제 활동의 결과로 유엔 기탁도서관 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장순홍 총장, 동남아 3개국 방문... “해외 현지 창업센터 개설”

장순홍 총장은 지난 1월 21일부터 해외 현지 창업센터 개설, 해외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현지 창업 동문 기업 탐방 등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했다.

한동대는 2015년 말까지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엠립, 태국 방콕 등에 해외 창업센터 5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장 총장은 이를 위해 한동대 동문 기업인 NIBC(New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코트라(KORT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지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을 방문하고 현지 한국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를 만나서 현지 창업 현황과 사례를 파악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에 근거지를 둔 NIBC그룹은 18여 명의 한동대 출신 동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현지 호텔 사업, 현지 학생들을 위한 초·중등교육 및 초급 대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직접고용인은 200여 명이며 하위 건설사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인을 두고 있다.

장 총장은 한동대 동문들이 직접 건물을 지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지 아이들에게 현지어와 영어로 교육을 제공하는 캄보디아 시엠립 무지개 유치원, 끈뜨락 유치원, 겨자씨 초등학교도 방문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장 총장은 현지의 코트라를 방문하여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K-Move 사업에 대한 현황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와 캄보디아 프놈펜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상생 혁신기술 플라자(Korea Win-win Innotech Plaza) 사무실에 공간을 얻어 현지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동문들을 격려했다. 이중 한 동문은 캄보디아 현지 대중교통 안내 및 예약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영로교회와 '다음세대 운동' 공동 추진 선포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한동대학교와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운동” 공동 선포식이 수영로교회 은혜홀에서 열렸다.

다음세대 운동(4/14운동)은 4~14세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로 양성하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이번 선포로 한동대와 수영로교회는 ▲다음세대 교육과 문화 창출에 대한 협력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육성에 관한 협력 ▲세계 복음화를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날 선포식에 장순홍 총장은 “선포식을 통해 4/14 운동의 절실한 필요성을 다시 깨닫고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 기도하기 원한다.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로 부산이 끝까지 남하를 버티어 내고 역전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이곳 부산 수영로교회와 한동대학교가 극한의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기를 소망한다”며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더 나아가 통일한국과 아시아, 전세계로 이 비전이 퍼져 나가며,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전세계적으로 간절히 기도제목이 되며 복음 전파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규현 수영로교회 담임목사는 “역사를 바꾸는 것은 교회의 소명이다.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나 한국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다음세대 문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며 “다음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신 장 총장과 한동대 교수들께 감사 드린다. 앞으로 수영로교회 사역자들과 한동대 교수,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 보자”고 전했다.



미국 명문 기독교학 휘튼대학교와 협약 체결

한동대학교와 미국 휘튼대학교(총장 필립 라이크)가 지난 1월 20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독교학인 두 대학은 학생 교류, 교수 교류,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육성 등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대학은 앞으로 일반적인 대학 차원의 교류를 넘어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적인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청소년 시절부터 바른 인성과 비전을 갖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기독교적 가치의 훼손으로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고, 사회적 병폐가 만연한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독교 대학이 함께 손잡고 청소년들의 미래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립 라이크 휘튼대 총장은 “한국 사회와 교육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동대와 교류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양교가 가진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복음 회복과 크리스천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휘튼 대학교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기독교 대학으로 1860년에 설립되었다. 2015년 프린스턴 리뷰 대학 평가에서 학부 교육 최고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미 국회의장 및 빌리 그래함(Billy Graham)목사를 배출하는 등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수 약 2,900명, 교수 200명 규모이며, 신학을 포함한 응용보건학, 생물학,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교직원 소식

교원 보직발령

발령일 2014.8.1

보직명	교수명	소속
학술정보처장/학술정보처 정보화추진실장	조윤식	전산전자공학부
국제처 국제교류협력실장	원재천	국제법률대학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장/ 일반대학원공간설계공학과주임교수/ 건설환경연구소장	구자문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법학부장	이국운	국제법률대학원
산업교육학부장/ 산업교육학부 사회복지학과 주임교수	유장춘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언론정보문화학부장/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장	형대조	언론정보문화학부
국제경영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주임교수	조대연	경영경제학부
기초과학주임교수/ 공학혁신센터 MSC 주임교수	이한진	글로벌리더십학부
실무전산 주임교수	김현주	글로벌리더십학부
인성교육 주임교수	신성만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GM과정 주임교수	김영진	경영경제학부
교육대학원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전공 주임교수	이은실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주임교수	최용준	Global EDISON Academy
통번역 한영통역번역학과 주임교수	박혜경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연구소장	마민호	국제어문학부
첨단기계기술연구소장	나원상	기계제어공학부
한동해해양수산연구소장	도형기	생명과학부
경북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인재양성 사업단장	이재영	기계제어공학부

발령일 2014.8.5

보직명	교수명	소속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공학혁신센터 전문교양 주임교수	한윤식	전산전자공학부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안진원	경영경제학부
창업보육센터장	이종선	기계제어공학부
한동교육개발센터장	이은실	교육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안세일	경영경제학부

발령일 2014.9.1

보직명	교수명	소속
공학계열학장	한윤식	전산전자공학부

발령일 2014.10.1

보직명	교수명	소속
창의융합교육원장	방청록	국제어문학부
ICT융합전공 주임교수	조대연	경영경제학부

발령일 2014.11.1

보직명	교수명	소속
입학-인재개발처장	제양규	기계제어공학부

발령일 2014.11.14

보직명	교수명	소속
일반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이국운	국제법률대학원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주임교수	형대조	언론정보문화학부

발령일 2014.12.8

보직명	교수명	소속
ICT기반 글로벌창조혁신 인재양성사업단장	안진원	경영경제학부

신임 교원

발령일	교수명	소속
2014. 9. 1	이혜규	경영경제학부
2014. 9. 1	구환희	국제법률대학원
2014. 9. 1	최창범	창의융합교육원
2014. 9. 1	신성용	창의융합교육원
2014. 9. 1	우진하	언어교육원
2014. 9. 1	Megan Cawood	언어교육원



이혜규 구환희 최창범 신성용 우진하 Megan Cawood

교직원 소식

정년퇴임 교원



퇴직일	성명	소속	재직기간
2015.3.1	지승원	법학부	12년

교원표창



표창명	성명	소속
국무총리 표창	김인중	전산전자공학부

직원 소식



정년퇴임 직원

퇴직일	성명	소속	재직기간
2014.8.31	박성록	총무인사팀	18년 4개월



직원표창

표창명	성명	소속
경북도지사 표창	김미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동문 소식

황현진 (언론정보문화 99학번) 동문, 저서 출간

제목 설득의 정석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출간일 2014. 2

도서 소개

전국 강연콘테스트 1위, 전직 최대매출 쇼핑 호스트로 흡소핑 기네스에 오르며 대한민국 최고의 설득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인정받기까지, 고객을 설득하고 현장에서 강의하며 쌓은 실전 설득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설득의 정석'은 설득을 이끄는 '감정의 힘'과 설득에 영향을 주는 여섯 가지 감정(존중감, 당혹감, 만족감, 불안감, 동질감, 기대감)과 각각의 감정을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박슬아 (산업정보디자인 96학번) 동문, 대한민국 자랑스런 워킹맘 수상

박슬아 동문이 2014년 11월 19일 GWP <대한민국 자랑스런 워킹맘>을 수상했다. GWP는 Great Place to Work 의 약자로 매년 전 세계 46개국에서 함께 각 나라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박슬아 동문은 육아를 하는 전문직 여성들을 위한 회사인 <별주머니>의 대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박슬아 동문은 96학번으로 산업정보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여러 회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홍보 마케팅 담당자로 활동했으며, 두 아이를 키우며 4년간 육아에 전념하다가 2012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2013년 별주머니(www.byuljumony.net)라는 디지털 에이전시를 창업했다. 별주머니는 모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디자이너 10명과 영업, 개발, 마케팅 등 총 14명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제작, 그래픽 디자인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 사업가의 귀한 마음, 울진 땅 기증으로 이어지다

김인곤 후원자와의 인터뷰



지난 2014년 10월 22일 김인곤, 김정림 부부가 울진에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우리 대학교에 기증하였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기증식에서 부부는 장순홍 총장에게 울진의 땅이 귀하게 사용되도록 부탁한다며 기증한 땅이 학교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자대표로 김인곤 사업가와 10월 29일 인터뷰를 나눠보았다.

어떤 계기로 울진의 땅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시게 되었나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주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들어올 때마다 전에 매입했던 울진의 땅이 계속 생각 났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보니 울진 땅이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땅을 놀리고 있자니 아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증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평소 좋은 형, 동생관계로 지내던 안민석 국회의원이 한동대학교에 기증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솔직히 타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개교 20주년이 된 한동대학교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대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이 선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 위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요(웃음). 또 직접 총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의 비전과 교육이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울진의 땅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계속 기증하려다가 이제서야 기증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기증하신 울진의 땅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나요?

우선 기증식에서 총장님이 울진 땅에 한동대학교 울진 캠퍼스를 조성하여 평생교육과 특별교육, 그리고 경영자 과정, 원자력 에너지 연구 등 일부 정규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문화캠퍼스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여름캠퍼스 조성 계획도 고려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울진의 땅이 좋은 가르침에 대한 휴식처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학들도 대학마다 휴식공간이 있듯, 울진의 땅이 한동대학교만의 휴식공간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증하시고 난 후의 소감과 한동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원래 울진 땅은 나중에 성공한 후 별장을 지어 휴양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찾아가 쉬려고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늦게 사업이 자리를 잡았고, 또한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울진에서 얼마나 휴양을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바에 다른 이들에게 기증함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울진 땅을 받아주셔서 고맙고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일 때문에 타 대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한동대학교 이야기를 하니 좋은 학교라고, 땅을 기증하신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적대시 할 수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 한동대학교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땅을 기증한 일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동대학교가 타의 모범이 되는 학교가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신앙과 배움의 자세를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중요한 곳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증한 땅이 귀한 쓰임을 받아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㉞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워크 장학생 솽햏 비첸 학우와의 만남



한동대에는 디모테를 사역자로 이끌어준 바울과 같이 세계 각국으로 파송될 외국인 학생들에게 청년 리더의 양육을 지원하는 팀워크(TimWork) 기부금이 있다. 팀워크의 Tim은 Timothy(디모테)의 줄임말로 ‘디모테 사역’을 뜻한다. 기부금은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학비, 생활비, 문화행사비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80여개의 교회와 일반 후원자들이 팀워크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캄보디아 출신의 솽햏 비첸(Sophat Vichet, 경영경제 11) 학우도 팀워크 기부금을 통해 한동대를 다니고 있다. 그는 2011년 입학 당시부터 지금까지 김재철 후원자님(선진엔지니어링(주) 사장)으로부터 4년간 팀워크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솽햏 비첸 학우는 원래 호주로 대학을 가고 싶어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호주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했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이하 HILS)를 졸업한 그의 누나의 추천으로 한동대에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2009년과 2010년도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열광하게 한 K-POP의 인기를 회상하며, 입학 당시

K-POP 외에도 한국의 기술과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았고, 한국의 교육수준도 높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다고 했다.

그는 한동대에 와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지난 2011년 제주도에서 열린 EHDS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

“제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건 EHDS였어요. 컴퓨터나 핸드폰 없이 그 곳에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묵상했어요. 설교하셨던 분들의 말씀도 정말 감명 깊었어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2011년 이후 어느덧 4년이 흘러 그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에게 지난 4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친구’라고 한다.

“전 계속 국제관에 살아서 항상 교환학생이나 외국인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가진 친구들이라 다른 점이 많지만, 서로 이해하고 살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



더라고요.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덕분에 그는 4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서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시는 데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를 이어주는 가장 큰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는 크리스천 대학인 한동대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그는 팀워크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준 후원자 분께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했다. 후원자 분의 선행은 그에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 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고, 한동대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기, 한동에 있다는 게 그에게 큰 축복이라고 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누군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저를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후원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솽햏 비첸 학우와 비전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졸업 후 1-2년 정도 NGO를 통해 다른 나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 이후엔 호주나 뉴질랜드로 마케팅을 공부하러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국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아시아랑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일은 캄보디아에 투자자들을 더 끌어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이라 광물과 연료와 같은 지하자원이 많은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한다. 캄보디아에 이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업가를 데려 오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의 장기적인 비전은 고아원을 여는 것이다. 캄보디아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쁜 길로 많이 빠져 든다고 한다. 그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저 쉴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고아원이 아닌 교육과 기술을 가르쳐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아원을 만들고 싶어했다. 솽햏 비첸 학우도 고아로 자랐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고아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만 건네주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년 후에 꼭 그런 고아원을 열고 싶어요. 이렇게 저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세상을 바꾸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에요.” (H)

선배들의 뿌리가 후배들의 뿌리 내림으로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졸업생 후원모임 '뿌뿌'



매 학기 초,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 산타가 다녀간다. 루돌프를 끌지는 않지만 후원금을 보내는 그들은 무려 10명이 넘는다. 내 밥그릇 챙기기도 바빠 남의 밥그릇까지 뻔뻔하게 넘보는 세상에서 이렇게 선뜻 자신의 밥그릇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바로 04 ~ 06학번의 한동대학교 졸업생이었다. 쉽고 재미있게 부를 수 있어 '뿌뿌'라 이름 지었다고 답하는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졸업생들이 벌써 3년 째 한동에서의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뿌뿌라는 이름이 특이한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뿌뿌’라는 단어 자체가 쉽고 재미있어서 편하게 부를 수 있기도 한데요, 사실은 ‘선배들의 뿌리가 후배들의 뿌리 내림으로 전해지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뿌뿌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특이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가요?

모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한 졸업생들이고, 04~06학번까지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서 그냥 편하게 만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로 후원할 생각은 하셨나요?

저희는 서로 같이 공부하며 친분도 있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취업도 하게 되었는데, 취업 후에도 학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학부 공부하면서 교수님들께도 당연히 도움을 받았고요, 직장을 구할 때도 학부에서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후원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후배들의 등록금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재비 쪽으로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게나마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신 건 아니신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저희는 지금도 정숙희 교수님, 전명희 교수님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나누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후원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와 교수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큰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드리며, 학부 교수님들께 연락하면 정말 좋아하셔서 오히

려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게 교수님들과 통화하면서 격려 받고 오히려 저가 더 큰 힘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뿌뿌와 같은 친목모임을 전 세계 곳곳의 동문들에게 추천한다면요?

학교를 돕는다는 것이 물질적인 큰 도움을 준다고보다는 학교에 다닐 때 학교를 향해 가졌던 감사한 마음을 이어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

는 한동대학교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동 졸업생 1만여명에게 뿌뿌의 취지를 알리며 한동대학교와 졸업생들 간의 인연의 끈을 만들어가는 뿌뿌! 사회에서 한동의 정신으로 성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선배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후배들도 뿌뿌의 뒤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뿌뿌야 후배들에게도 이어져 듀오! ㉞

우리는 한동천사입니다!

재학생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 '한동천사'



2014년 한해 한동대 재학생 620명이 학교를 위해 소중한 마음을 나누었다. 재학생 대상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인 ‘한동 천사’(한동의 미래를 천원의 사랑으로 시작합시다)에 참여한 것이다. 한동대 대외협력실과 총학생회 한바탕, 자치회 이음지음, 글로벌리더십학부가 함께 하였고, 강신익 교수님과 배건웅 교수님의 10만원 프로젝트팀도 참여한 이번 한동천사 캠페인은 재학생들이 월 천 원 이상의 금액을 학교에 후원함으로써 한동미래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후원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홍보게시물의 NFC QR코드를 태깅하거나, NFC 앱 또는 갈대상자 홈페이지를 통하면 재학생 누구든 한동천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대는 1995년 개교 때부터 여러 교회와 4만여 명의 갈대상자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왔다. 20년의 역사가 쌓이는 동안 한동을 향한 후원금은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이 되었다.

특히, 하버드 대학의 경우 동문 중 46%가, 예일 대학의 경우 50%가 학교 후원에 참여하고 있는 등 동문들이 모교에 관심을 갖고 후원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번 한동천사 캠페인의 결과는, 비록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 하나하나의 참여가 이루어 낼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캠페인 기획과정에 참여했던 김호경(경영 08) 학생은 “한동천사 캠페인은 재학생 대상 후원캠페인입니다. 개교 20주년을 맞아 학교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재원마련이 절실한 때에, 학교의 미래를 위해 재학생들로부터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졸업동문,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한동천사가 된 한가영(상담사회 12) 학생은 “한동에 다닌 지 벌써 3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동에는 새로운 기숙사와 운동장이 생기는 등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한동에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한동을 위해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동천사를 통해 작게나마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라며 한동천사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으로 참여한 삼소노브 브라디밀(법 13) 학생은 “제가 한동천사가 된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행20:17-35)’ 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참여하였습니다.”라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이렇게 올 한 해 총 2회 진행된 캠페인의 결과, 총 620명의 한동천사가 탄생했다. 이번 행사는 화평의 세대 14학번 새내기부터 03학번 굵직한 선배까지 다양한 학번대가 참여해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길거리 캠페인부터 플레시몹, 팀모임 소개, 킥홀더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앞으로 620명의 한동천사는 정기후원과 함께,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한동대가 앞으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학이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H)

나도 한동천사 되기

모바일 <http://sarang.handong.edu/angel>

PC http://sarang.handong.edu/sub02/sub02_04_rule.aspx?return_url=sub02_04.aspx

후원안내

갈대상자(일반기부금)

하나님께서 작은 갈대상자를 통해 모세를 지키셨고, 훗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길러내셨습니다. (출2:3)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를 향한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해 한동의 갈대가 더욱 견고히 여이기를 소망합니다.
*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보아스(일반기부금)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만을 가지고 낯선 곳을 향해 기꺼이 믿음의 걸음을 떼었던 롯.
하나님께서 이 굳건한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은 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걸음의 끝에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르는 한동 믿음의 행진에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한구좌 100만원 이상)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 TimWork(팀워크) :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그 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의 연합전선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건축기금

한동대학교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꿈을 품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글로벌 타운(Global Town)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한동 글로벌 타운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따뜻한 정성과 기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곳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국민은행 640437-04-000024

한동 첫 열매(첫 월급)

첫열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월급 기부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첫 마음과 수고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사랑은 자신이 그러하였듯 후배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한동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기부금을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 갈대상자 및 보아스 기부금은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 기부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후원가입·정보변경·종료안내

1.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를 통한 신청
2. 직접 신청은 한동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과 세금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054-260-1063~7
팩스: 054-260-1069
E-mail: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13 라임타워 12층
전화: 02-3443-3939
팩스: 02-3446-3939
E-mail: hguseoul@handong.edu

한동대학교 미주 후원회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HIF)
24428 South Vermont Avenue, Harbor City, CA 90710 USA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E-mail : lahandong@gmail.com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HIFI)
3200 Westhurst Lane, Oakton, VA 22124-1748 U.S.A
Tel: 703-627-8050
E-mail : ksc@bskb.com

신규 기부자 명단

2014.7.1 ~ 2014.12.31 전체 615명

강다솔	김경주	김성일	김정민	김희용	박서진	서광하	심용현	윤브니엘	이석우	이재호	이희소	장택수	정정현	진연정	한상철
강명애	김경천	김세원	김정현	김효진	박선미	서수현	심재혁	윤애신	이성실	이정민	이희진	장효중	정종호	진준서	한상훈
강민주	김경호(55)	김소영	김정호	김흥욱	박성동	서숙자	안속희	윤영한	이성찬	이정섭	임강림	전당희	정종환	차유환	한수진
강보선	김경호(89)	김소윤	김정화	김희수	박성민	서예린	안시진	윤용승	이성현	이정숙	임동진	전성미	정주호	차은경	한은지
강상훈	김군중	김송영	김정환	김희은	박성영	서태중	안재경	윤장완	이소연	이정은	임만성	전세영	정준구	차재아	한종호
강석민	김규민	김수영	김조강	김희훈	박성철	서하람	안재욱	윤주영	이수진	이정희	임명복	전영민	정찬영	차주영	한혜지
강신원	김규창	김수현	김종호	나예원	박세형	서혜림	안지산	이가경	이숙	이주영	임민택	전영호	정창대	채병득	허경희
강영기	김금희	김슬기	김주희	나종열	박승희	석범진	양기석	이강재	이순옥	이주영	임상래	전예지	정태영	채예원	허성백
강영숙	김기홍	김승일	김준우	남성호	박영숙	석예원	양석원	이건희	이순철	이주찬	임순정	전은숙	정해은	천금란	허성원
강영태	김다윗(90)	김승환(77)	김지열	노대벽	박영춘	성경은	양성미	이겸재	이슬	이주택	임영조	전제일	조고은	최기훈	허수진
강은유	김다윗(95)	김승환(88)	김지영	노수동	박예나	소유진	양지용	이경일	이슬기	이주함	임영태	전주영	조길영	최낙영	허예진
강윤구	김다훈	김시내	김지웅	노슬기	박예실	소중희	양태용	이광성	이승민	이주희	임원규	전준모	조두석	최동호	허은석
강은민	김대호	김시영	김지은(93)	노제상	박우경	손금선	양하영	이광용	이승언	이준우	임유빈	정건희	조래훈	최미나	현진우
강재연	김도연	김신경	김지은(95)	노하민	박원봉	손상목	양현철	이궁재	이승완	이준희	임은주	정경자	조민경	최선미	홍기철
강지현	김도진	김신희	김지현	류경돈	박윤남	손성경	양희복	이기영	이시원	이지수	임이갑	정다엘	조성혜	최설인	홍다니엘
강창성	김도한	김영근	김진배	류승호	박윤진	손승해	여동근	이남진	이애술	이지영	임종식	정민우	조아영	최소망	홍미정
계기원	김동민	김영기	김진수	류영철	박은택	손영복	여인설	이대전	이연주	이지훈	임주는	정삼용	조영미	최수정	홍수명
고다은	김동석	김영식	김진욱	류진환	박종원	손청은	오경미	이대천	이영선	이진규	임준엽	정상원	조우림	최영철	홍아람
고범석	김동혁	김영재	김진환	류호진	박종호	송기영	오명훈	이덕재	이예빈	이진원	임준영	정성민	조원규	최옥선	홍윤선
고승희	김만준	김영진	김찬영	모인옥	박지영	송기현	오세룡	이동규	이용석	이찬석	임한결	정성엽	조원석	최우림	홍종길
고에스더	김명섭	김영호(56)	김찬우	문미경	박진필	송만기	오수현	이로	이용운	이찬영	임희영	정승영	조윤숙	최유정	홍찬양
공혜영	김명숙	김영호(64)	김충현	문상일	박진희	송미선	오시인	이루리	이용한	이천우	장나경	정여경	조은아	최은주	홍현영
곽지호	김명원	김예본	김충환	문영국	박찬수	송소연	오애늑	이명석	이우락	이충명	장능인	정연자	조은희	최의성	황다나
구아영	김미령	김예빈	김태석	문예찬	박찬영	송연정	오유진	이무형	이원구	이하은	장명옥	정연집	조정훈	최정미	황서연
권동진	김미숙	김예인	김태준	민병수	박찬주	송은총	오인교	이미영	이유나	이향숙	장무진	정영규	조종현	최지원	황성준
권령아	김미연	김예주	김푸른솔	민총기	박창욱	송재성	오재훈	이미자	이유민	이현건	장수빈	정영화	조진영	최지현	황세익
권병윤	김미정	김예준	김필자	민현준	박천명	송주안	오창민	이민교	이유정	이현기	장순홍	정용진	조하늘	최진호	황수아
권순도	김민하	김예현	김한결	박가영	박하은	송준영	옥가민	이범희	이유진	이현답	장승리	정윤조	조혜찬	최창준	황이주
권순연	김범준	김요한	김해빛나	박건희	박현우	송준현	왕수진	이병하	이윤경	이혜진	장영신	정은진	주녕호	최학용	황인기
권순창	김보선	김용욱	김현승	박경록	박형중	송해상	우선태	이봉은	이은성	이화원	장정숙	정은하	주요셉	최혜연	황인수
권순탁	김봉현	김우년	김현정	박경민	박홍건	송향숙	원병일	이상기	이장상	이효진	장준영	정은희	주찬미	한동섭	황준태
권양선	김산성	김원득	김형민	박경원	박희성	송현철	원종혁	이상재	이재성	이훈호	장진수	정잠언	주찬영	한복희	황혜인
권오성	김상배	김유신	김형빈	박광용	반병우	신다현	유길조								
권용찬	김상언	김윤경	김형수	박덕구	방새봄	신순오	유대호	John F. Bailey		유라시아인터내셔널		사회복지법인중부재단		(주)하이테크아이앤드이	
권지연	김서로	김은광	김형준	박미숙	방윤중	신영섭	유동식	Samsonov Vladimir		속초중앙교회		(재)승희장학문화재단		(주)현대홈쇼핑	
길병남	김석진	김은숙	김혜빈	박미자	배승환	신정모	유인경	Scholarship America		양산삼양교회		(주)금원기업		동원산업(주)	
김가현	김석화	김이레	김혜연	박민아	배이현	신종혁	유정화	정숙자수학교습소		위성탄한인교회		(주)동양 이엔지		두산인프라코어(주)	
김건우	김성근	김재동	김혜영	박민혁	백월방	신지은	유지원	고려드림내과		황지교회		(주)사론상사		한국산업은행	
김경동	김성실	김재욱	김혜은	박상아	백윤정	신창숙	유지환	모든출력인쇄		흥해베델교회		(주)씨에이치피인터		한국인재평가개발원㈜	
김경민	김성욱	김재청	김혜정	박상철	백의성	심영환	유효석	별주머니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권사회		(주)오피스넥스 포항점			
김경환	김성은	김정림	김호민	박새롬	서경	심예린	유희수	세인빌딩		포항기업협의회		(주)일등부동산컨설팅			



문의 대외협력팀 054-260-1063



$$\begin{array}{|c|c|c|} \hline & & \\ \hline \end{array} - \begin{array}{|c|c|c|} \hline & & \\ \hline \end{array}$$

$$\boxed{7} \boxed{9} \boxed{1} - \boxed{7} \boxed{0} \boxed{8}$$

포항장량동우체국
제40002호

[illegible]

※개원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휴일은 제외합니다. 문의: 02-1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문의: 02-1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

후원신청서

후원자정보

성명[기업명/대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연락처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출석교회	
구분	☐ 일반인 ☐ 기업 ☐ 교직원 ☐ 학부모(자녀성명/학번:) ☐ 동문(학번:) ☐ 교회 ☐ 기타		

기부금영수증

☐ 미발행
☐ 발행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약정정보

후원금액	☐ 일회 원 ☐ 정기 월 원	
후원종류	용도 미지정	☐ 갈대상자(일반) ☐ 보아스(고액일반)
	용도 지정	☐ 팀워크(교육선교) ☐ 건축기금 ☐ 기타지정기부금()

*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갈대상자 및 보아스 후원금은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는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납부방법

☐ 자동이체 (CMS)	이체일 ☐ 10일 ☐ 23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명 *후원신청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
☐ 무통장 입금	갈대상자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학)한동대학교 팀워크 하나은행 518-910023-11205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국민은행 640437-04-000024 한동대학교 첫열매,지정기부금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대학교	

※ 약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동의가 필요합니다. 뒷면을 읽어보시고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읽는 한동대학교

30만 독자가 선택한 책.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김영애 부부의 한동 대학 눈물의 양육기!

기적이 일상인 광야학교의 산 증인! 한동대 김영길 초대 총장 부부의 19년간의 가슴 벅찬 기록!

무신론 과학자에서 창조주를 믿는 과학자로 변화한 후
19년간 한동대 총장으로 섬긴 김영길 초대총장의 신념이 담긴 스토리!



영상으로 보는 한동대학교
모바일 : 한동대학교 홍보영상 QR
PC http://www.handong.edu

홍보자료 요청
054-260-1063 (단문40자) 로 수령자와주소,문자 발송
입학상담 054-260-1084~6

SNS로 만나는 한동대
한동대학교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ndonguniv
한동대학교 카카오토리 <https://story.kakao.com/ch/handonguniv>

후원으로 참여하는 한동대
후원 홈페이지 <http://sarang.handong.edu>
후원 문의 054-260-1063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